

다카사고 거리 산책 투어

다카사고 지역은 에도 시대(1603~1867) 초기에 정비된 마을 구획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참가자는 지역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여유롭게 마을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투어 비용은 300 엔(세금 포함)이며 1 시간 반에서 2 시간 동안 진행되며,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 워크숍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.

투어는 다카사고역에서 출발하며, 시내의 주요 문화적 명소와 건축물을 둘러봅니다. 지역의 사업가이자 발명가였던 구라쿠 마쓰에몬(1743~1812)의 후손이 살았던 옛 저택 등 대부분이 에도 시대 후기에 지어졌습니다. 이 밖에 옛 다카사고 소방회관 등 쇼와 시대(1926~1989) 초기에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.

투어는 참가자의 속도에 맞춰 진행되며, 가이드에게 질문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과 Wi-Fi 를 사용하면 시내의 각 역사적 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카사고 지역 산책 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투어에 워크숍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 마쓰에몬 범포로 만드는 소품통, 손빛기로 만드는 도자기 등의 워크숍이 있으며, 유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투어와 워크숍은 예약이 필요합니다. 문의 및 예약은 이메일(guide@takasago-tavb.com) 또는 다카사고시 관광교류사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